

아시안 아동학대 피해자들,, 가족에 대한 미안함때문에 신고도 못 해..

radioseoul1650.com/local/아시안-아동학대-피해자들-가족에-대한-미안함때문/

By 이은

2월 11, 2021

‘코로나19’ 확진자수·관련정보

[자세히 보기](#)

코로나 팬더믹이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인등 아시안 가정에서 아동 학대 문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음지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 은 기잡니다.

코로나 팬더믹속 아이들이 집안에서만 지내면서 가정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도움이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가정의 경우,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아도 신고를 하기 더 어렵다는 문제에 부단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11일 KACIE 스트레티지 주최로 열린 아동학대 문제 포럼에서 마이크 퓨어 엘에이시 검사장은 코로나 팬더믹 이후,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아시안 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보니 팬더믹 기간동안 신고건수가 급감할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컷 육체적 학대의 2020년 기소건수는 , 2019년 기소건수는 성적학대의 기소건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코비나의 위치한 아동옹호 센터 소속 아동 포렌식 인터뷰의 전문가인 모니카 보란다씨는 특히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아시안일 경우 동양적인 정서로 인해 학대를 당한 신체부위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컷 아이들이 학대를 당해도 가해자인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해자인데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리안트 인터네셔널 대학의 교수인 미치 푸 심리학 박사는 아시안계 어린이들의 경우 가정학대를 받고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당국에 신고를 망설인다고 하며, 도움의 손길을 먼저 뻗어주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가정 상담소의 캐서린 옴 소장은 한인가정의 경우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신고를 해서 주변에 학대사실을 알리면 가족을 배신한다는 죄책감에 사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가족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은 기자

Categories: [2. 로컬/캘리포니아](#)

Tagged as: [covid](#), [pick](#)